

Market behavior **엣보기****E BEST EDGE****한국시장 성격으로 본 외국인 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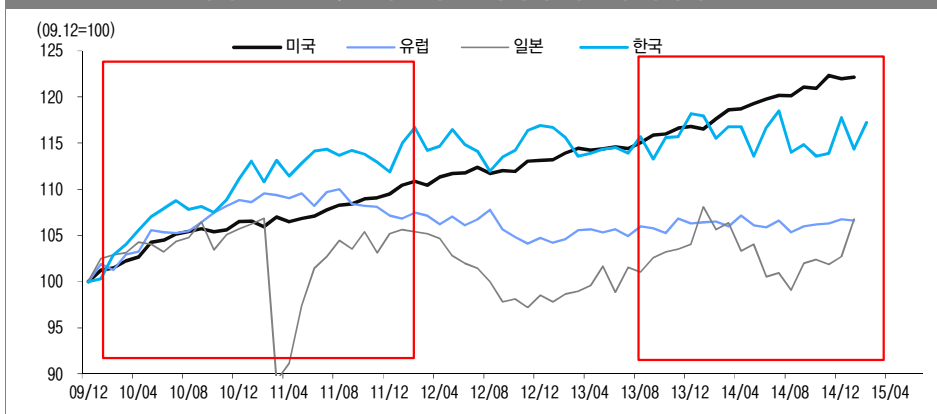
Investment Edge

한국시장의 성격이 바뀌었다. 금융위기 이후 보여줬던 전형적인 모멘텀 시장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산업생산이라는 기업의 생산활동을 보여주는 지표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09년 이후 11년까지 한국 산업생산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12년 이후 정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09년 이후 꾸준한 상승을 보여준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본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모멘텀이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시장의 모멘텀이 약해지니 외국인이 바라보는 한국시장 성격도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흐름이다. 최근 외국인 매수는 지난 2013년 'Tapering' 논란이 있었던 시기에 신흥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한국시장을 매수했던 흐름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판단한다. Fed의 금리인상에 따른 일부 신흥국의 위험을 비껴가기 위한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는 구간에서 외국인 매수는 13년의 경험에서 보듯이 지속성이 약하다.

외국인 매수가 원/달러가 아닌 유로화 약세와 함께 한 것도 매수의 지속성을 약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본다. 양적완화로 유럽의 펀더멘탈이 개선된다면 유로화 약세는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멘텀이 개선되어야 한국시장의 외국인 매수도 강도와 지속성이 모두 좋아질 것이다.

산업생산으로 본 국가별 모멘텀: 한국은 주요 국가와 비교해 약하다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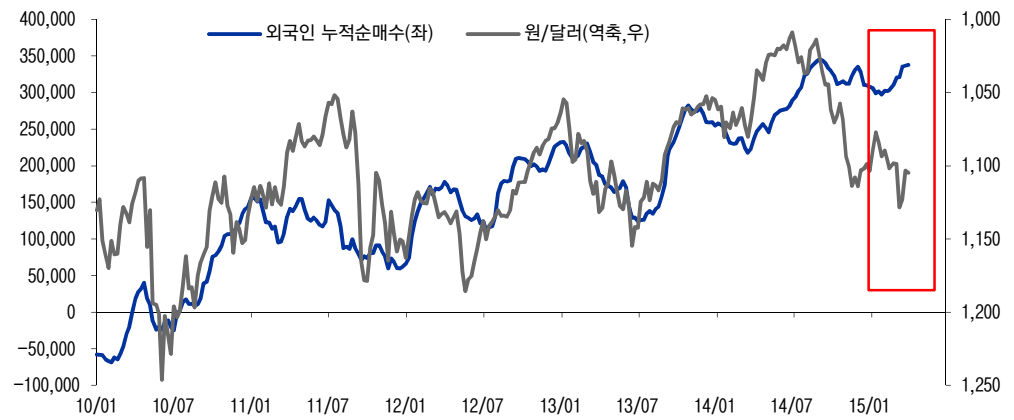
퀀트/투자전략

양해정

02. 3779-0151

hjyang@ebestsec.co.kr

그림1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외국인이 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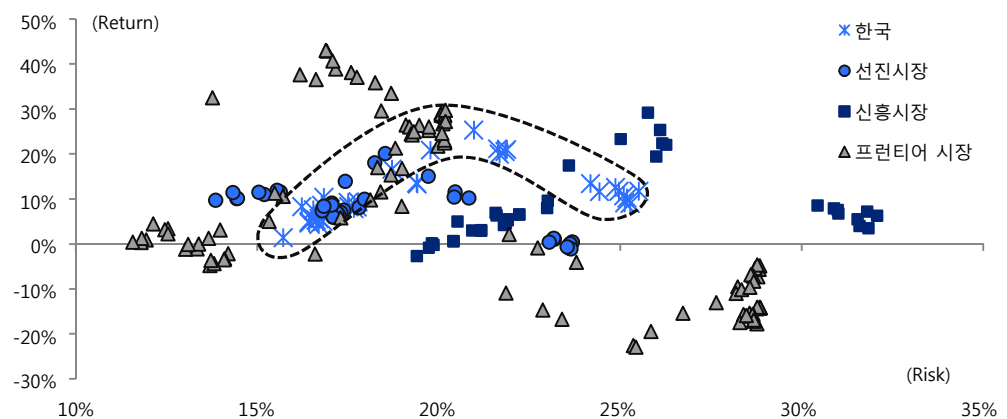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유로화 약세와 함께한 외국인 매수



자료: Quantiwise,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신흥시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한국시장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양해정)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